

제 1 교시

국어 영역

홀수형

[1~2] (가)는 활동지의 '활동 1'에 따라 학생들이 실시한 독서 토의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화법)

활동지

활동 1 다음의 내용을 바탕으로 토의해 보자.

「허생의 처」에서 허생은 집안을 전혀 돌보지 않고 자신의 이상만을 추구한다. 이 때문에 허생의 처는 홀로 집안의 생계를 힘겹게 꾸려 나가지만 빈곤한 형편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러던 중 허생의 처는 행복하지 않은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허생과 갈등한다. 두 인물은 삶에서 중요시하는 행복의 조건이 서로 달라 갈등한다고도 볼 수 있다. 허생은 세상의 이치를 밝히고자 독서에만 전념한 것으로 보아 여기에서 자신의 행복을 찾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허생의 처가 추구하는 행복의 조건은 무엇일까?

활동 2 토의 내용을 참고하여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글을 써 보자.

(가)

현지: 오늘은 내가 진행할게. (활동지를 나눠 주며) 지난 시간에 「허생의 처」를 읽었으니, 이번 시간에는 ‘허생의 처가 추구하는 행복의 조건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토의하려고 해. 활동지를 통해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확인했으면, 지금부터 토의를 시작해 보자.

민호: 행복의 조건은 지혜나 도덕적 선과 같은 내적 조건과 부나 명예와 같은 외적 조건으로 나눌 수 있잖아. 허생의 처는 빈곤한 형편에 놓여 있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이런 이유로 볼 때, 허생의 처는 외적 조건인 부를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 [A]

영수: 과연 그럴까? 허생의 처는 생존을 위한 기본적 요건을 충족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그런 점에서 허생의 처가 외적 조건인 부를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

민호: 듣고 보니 그러네. 허생의 처가 행복의 외적 조건인 부를 추구하고 있다고 보는 건 적절하지 않을 수 있겠어.

현지: 정리하면, 허생의 처가 추구한 행복의 조건을 외적 조건이나 내적 조건으로만 접근하는 건 적절하지 않을 수 있겠네. 그렇다면 허생의 처가 추구한 행복의 조건을 다른 측면에서는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

민호: 허생의 처가 추구하는 행복의 조건은 가족 구성원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접근해 볼 수 있겠어. 허생의 처는 홀로 가정 생계를 꾸려야 하는 부담을 일방적으로 강요받고 있고 허생은 허생의 처의 힘겨움을 외면하고 있어. 이 때문에 허생의 처는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 같아. [B]

영수: 맞아. 허생의 처가 추구하는 행복의 조건을 가족 구성원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더 살펴보면, “나는 내 남편이 하는 일을 모르고, 남편은 제 아내인 나를 모르고...”라고 허생의 처가 남편에 대해 한탄하는 대목을 볼 때 허

생의 처는 가족 간의 소원한 관계도 행복하지 않은 이유로 여기는 것 같아.

현지: 정리하면, 결국 허생의 처는 강요된 희생과 소원한 가족 관계라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행복하지 않았던 것이고, 가족 구성원 간의 바람직한 관계를 행복의 조건으로 추구했다고 볼 수 있겠어.

1. 다음은 ‘현지’가 (가)를 준비하면서 떠올린 생각이다. ㉠~㉣ 중 (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을 고른 것은?

이번 독서 토의는 어떻게 진행되는 게 좋을까? 우선 토의와 관련된 활동지를 나눠 주고, ㉠ 시작할 때 토의 주제를 언급하는 게 좋겠어. 그리고 참여자들이 고루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 발언 순서를 지정해 줘야지. ㉢ 근거 없이 의견만을 이야기할 때는 근거를 함께 제시하도록 요구해야겠어. 토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 토의 내용을 정리해 주고, ㉤ 질문을 통해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보도록 유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

-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 ⑤ ㉢, ㉣, ㉤

2. [A], [B]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 ‘영수’는 ‘민호’에게 추가적인 근거를 요구하기 위해 질문하고 있다.
- ② [A]: ‘영수’는 ‘민호’의 의견을 수용하면서 또 다른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 ③ [A]: ‘영수’는 ‘민호’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그 의견을 재진술하고 있다.
- ④ [B]: ‘영수’는 ‘민호’의 의견을 받아들이며 이를 보완하는 의견을 추가하고 있다.
- ⑤ [B]: ‘영수’는 ‘민호’의 의견에 대해 논리적 오류를 지적하면서 상반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1~2] (문법)

1.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영희: 경준아, 선생님께서 다음 국어 시간에 있을 모둠 과제 발표는 네가 주도해서 ㉠ 준비하시라고 하셔.

경준: 시인 소개 모둠 과제 말이지?

영희: 응.

경준: 그런데 어떤 시인을 주제로 발표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도 말씀 ㉡ 있으셨니?

영희: 아니. 그건 시간이 날 때 네가 직접 선생님께 ㉢ 물어 서 알아봐.

경준: 아무래도 그래야겠어.

영희: 그런데 선생님께서 저번 수업 시간에 김소월의 시가 ㉣ 자기의 애송시라고 ㉣ 말했잖아. 김소월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시인이기도 하니까 김소월의 시 세계를 주제로 하여 발표해 보는 건 어때?

- ① ㉠: 주체가 '경준'이므로 '준비하라고'로 바꿔 말해야 한다.
- ② ㉡: 주어가 '말씀'이므로 '있었니'로 바꿔 말해야 한다.
- ③ ㉢: 뒷사람인 '선생님'께 묻는 것이므로 '여쭙서'로 바꿔 말해야 한다.
- ④ ㉣: '선생님'을 높이는 것이므로 '당신'으로 바꿔 말해야 한다.
- ⑤ ㉣: 주체가 '선생님'이므로 '말씀하셨잖아'로 바꿔 말해야 한다.

2. <보기>의 중세 국어 자료에 나타나는 특징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중세 국어: 뒤에는 **모던** 도적 알피는 어드본 길헤 **업던** 번 개를 하늘히 불기시니

현대어 역: 뒤에는 **모진** 도적 앞에는 어두운 길에 **없던** 번 개를 하늘이 밝히시니

중세 국어: 뒤에는 모던 중싱 알피는 기픈 **모새** **열본** 어르 물 하늘히 구티시니

현대어 역: 뒤에는 모진 짐승 앞에는 깊은 **못에** **얕은** 얼음을 하늘이 굳히시니

- ① '모던'이 현대 국어의 '모진'에 대응하는 것을 보니 구개음화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군.
- ② '업던'이 현대 국어의 '없던'에 대응하는 것을 보니 이어적기를 하였군.
- ③ '하늘히'를 보니 현대 국어에 쓰이지 않는 모음 '·'가 쓰였군.
- ④ '모새'가 현대 국어의 '못에'에 대응하는 것을 보니 모음조화가 지켜졌군.
- ⑤ '열본'을 보니 현대 국어에 쓰이지 않는 자음 '병'이 쓰였군.

국평일 배포 자료 아침 자습 자료 6차

선택 영역 by 평가원 정답

2018.수능 화법 (4, 5) 1. ㉓ 2. ㉔

2015.09 B형 문법 (13, 16) 1. ㉔ 2. ㉔